

# 내년도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구입 지원

###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각각 15·20·30만원·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2년도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에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지원안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테마식 현장체험 학습비에 112억4,100여만 원, 교복비에 96억5,500여만 원이 투입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년 학생 전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1인당 지원금은 초등학교생 15만원, 중

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감액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 단가를 감액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비(숙박형) 지원이 원칙이나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1일형이나 교내체험학

습에도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복구입비는 교복착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지원 인원은 중학교 1만6,486명·고등학교 1만5,689명 등 총 3만2,184명이다.

/장은성 기자

# 소독제 효력 검증 연구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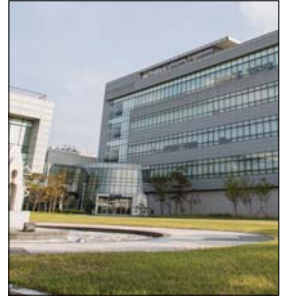
###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환경부장관 표창' 국내 코로나19 소독제 유효성분 기준 설정 기여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소장 여성숙)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제의 효력을 검증한 연구를 통해 인체 관련 소독제의 유효성분 기준 설정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손소독제 등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간 각 소독제 성분의 효력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재하고 실제로 기준에 따라 각 국가나 기관마다 권고하는 성분 목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독제의 효력을 검증하고 유효농도 및 권장 사용 시간을 도출해 소독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체나 환경에 안전한 사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소독제 주요 성분 및 승인 제품의 효력평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했다.

이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8개 제



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소독제에 대한 효력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관련 소독제의 유효성분 기준 설정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동물이용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갖춘 시설로, 국립야생동물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의 유효성분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인 '비백신 후보 순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의 효능평가'를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함께 하는 좋은 수업 공모전서 '대상' 수상

### 전국 LINC+사업단 공동 개최, 우석대 재할학과 황준형 학생 외 9명 '2구 콘서트 조립 작업 표본 평가 주제'

우석대학교 재할학과 학생들이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회 함께 하는 좋은 수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석대·건국대·한서대·배재대 LINC+사업단·제주관광대학교·한국비교정부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1개 대학에서 총 41개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주관기관 공동집수 형태로 진행, 대학별 1차 심사와 2차 공동 외부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석대학교 황준형(재할학과 3년) 학생 외 9명은 '2구 콘서트 조립 작업 표본 평가'를 주제로 응모해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 부문에서 김선주(경영문화대학원 사회경제학과 석사과정 2차수) 대학원생 외 9명의 '농촌혁신과 사회적 가치-완주군 로컬푸드를 중심으로'와 성세현(광고홍보이벤트학과 3년) 학생 외 3명의 '생거Re현', 양신유(재할학과 3년) 학생 외 4명의 '이제 힐링 시작이야! 우리의 테라리움'이 최우수상을, 양수현(물리치료학과 2년) 학생 외 5명의 '보완체제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과 김하늘(국방기술학과 4년) 학생 외 2명의 '전쟁사료



읽어보는 세계사', 김지호(유통통상학부 3년) 학생 외 4명의 '마케팅과 기업과 정신(wild 캠프)'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부문에서 장준형(안악학과 1년) 학생 외 5명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한 함께 하는 좋은 수업'이 우수상을, 한서대학교 LINC+사업단 부문에서 최나경(광고홍보이벤트학과 2년) 학생 외 4명의 '전주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과 김유나(특수교육과 2년) 학생 외 2명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최우수상을, 배재대학교 LINC+사업단 부문에서 권준형(광고홍보이벤트학과 4년) 학

생 외 4명의 '진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종석 단장은 "학생들에게 지적·정서적 만족을 주는 수업", 학생들이 변화와 성장을 맞보는 수업,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들 간 상호 참여와 소통이 있는 수업' 등 공유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관 기관들과 함께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은 협력 기관들과 함께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 교육 플랫폼 모델을 구축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들과 호흡해 만들어낸 큰 성과"

### 전주대,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 학생 최우수 논문상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운영하는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 학생(이디연의 3명)이 (사)한국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능형기계부품 학사과정은 전라북도과 전북테크노파크가 후원하고 전주대 산업공학과가 운영하는 '전북 TP 취업연계형 특성화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8년 개설해 올해로 4년째 전라북도 주력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의 지능형기계부품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사)한국농업기계학회가 개최한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캠프온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참여학생 5팀(총 15명)이 우수상(혁신상)을 수상했다.

책임교수인 이종호 교수는 "최우수 논문상 수상은 학생과 기업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로, 학생들과 호흡해 만들어낸 성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전북교육에서 수소경제 시작할 것"

### 황호진 전 부교육감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수소연구 권위자인 전북대 이종호 교수와 함께 OECD교육전문가 황호진이 찾아갑니다 제2차 교육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에서 수소경제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탄소중립 학교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수소학교 시범전환 ▲수소 스쿨버스 ▲수소에너지 특성화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생활환경교육·자연상태 교육·지구환경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교육과 운동이 '회용품 안쓰기 등 절제와 검소한 학교생활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학교급별 환경생태교육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 ▲환경생태 교육 중심학교 운영 ▲전북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황 전 부교육감은 "우리 교육도 초등학교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시 수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환경교과 선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호 교수는 "학교에서 탄소제로(중립)는 '경쟁'이 아닌 '공생'으로의 인식 전환과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생활습관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의 시스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직접적인 탄소배출경감을 이뤄내 탄소제로를 실현하도록 점차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임원 회비 납부 완료

전북체육회 임원들의 회비 납부가 100%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총 66명으로 구성, 도 체육회 임원은 직책별로 회비 금액이 다르다. 단, 감사는 회비 제외 대상이다.

회장은 5000만원, 부회장은 500만원(여성 200만원), 이사는 100만원이다. 경장선 회장은 회비와 별도로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냈다.

이처럼 임원 전원이 회비를 납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전북체육회는 밝혔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오롯이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임원분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다"며 "전북체육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대한민국 인재상 도내 청년 4명 수상

전라북도 청년 우수 인재 4명이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지난 28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총 100명의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인재(고등학생 50명, 대학생·일반인 5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북에서는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4명(전북대 고진형, 오세진, 이재연, 원광대 양정민)이 수상했다.

고진형(전북대)씨는 수의학과 컴퓨터 공학을 융합하는 글로벌 인재 능력을 인정받았다. 양정민(원광대)씨는 사회적 가치실현과 청년의 권익증진 기여, 오세진(전북대)씨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의식함양, 이재현(전북대)씨는 '차세대 그린 도시' 구축을 위한 공학도 자질을 높여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유호성 기자

### 군산대 '생태계 기후변화'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최우수

군산대학교의 융복합교과목인 '생태계와 기후변화'를 응모한 군산대학교 송기원 학생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실시한 '제2회 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콘테스트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사이에 수강한 교양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상적인 과목을 선택하여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목은 융복합 교과목으로 팀티칭 교수로는 환경공학에서는 정병곤 교수, 차양석 교수, 김성현 교수, 행정경제학부의 김민영 교수, 식품생명과학부 구재근 교수, 해양수산융합과학기술학부 장호영 교수가 참여하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호남권 참여 전문대 1위

### 전주비전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문용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종합성과 평가결과, 호남·제주권 참여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문대 LINC+사업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유형에 참여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는 5년 동안 LINC+사업을 운영하면서 협약 산업체 요구에 따른 직무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산업체와 공동 운영, 사회맞춤형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 등의 성과를 기록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2차년도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문용규 총장 직무대행은 "LINC+사업 및 혁신지원사업 (1유형)은 올해 마지막 연차로서 이번 종합성과 평가에서 그동안 꾸준히 키워 왔던 우리 대학의 역량이 그대로 나타났다"면서 "히루 진행된 LINC 3.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올해 LINC+사업을 비롯한 혁신지원사업 1유형과 3유형, 공간정보특성화사업, 대학산·학·관 카풀링사업 등 정부 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 실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오늘부터 정시 원서접수

### 가·나군서 1407명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30일부터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가군 685명과 나군 722명 등 모두 1407명을 모집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으로 스포츠학과를 비롯해 농생대(생명자원 융합학과 제외), 사범대, 상대, 생활대, 의대, 인문대, 자연대, 치대, 글로벌융합대에서 661명을 선발하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29명, 치대 5명 등 34명을 뽑는다. 치대의 치의예과는 올해 처음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간호대, 공대, 사회대 수의대, 약대, 환경대에서 615명을, 예체능 계열에서 97명을 각각 선발한다. 약대의 약학과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

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형방법은 예체는 계열을 제외하고 가·나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예체는 계열의 경우 학생부와 수능, 실기고사 성적이 반영된다. 민학도 전형(농생대 생명자원융합학과)은 수시모집과 동일하다.

수능성적은 국어 및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가·나군으로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와 웨이이 어플리케이션(http://www.uwayapply.c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또 예체능 계열의 경우 내년 1월 14일 실기고사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전형이 내년 1월 28일, 예체능 계열은 1월 27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